
2 0 2 5 학 년 도

6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해설지

[독서+문학]

어휘력과 독해력, 그리고 감상력



피렘의
국어공작소

생각 워크북 <카테고리 나누기>

2025.06 [4~7] 사회(경영학) '과두제적 경영' ☆☆

1문단

①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③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④이는 정치 조직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정당과 같은 조직에서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과두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초반부에 등장한 개념의 정의는 당연히 중요할 것이니,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화제 제시

이러한 '과두제'는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과두제'가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네요. 이렇게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는 정치 조직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문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겠지만, 첫 문단을 읽고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지문 전체를 읽어 나갈 때의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요.

2문단

①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②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①~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고,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모든 주주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② #재진술

이렇게 모든 주주가 균등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경영진이 되려면, 당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연히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 결정권을 균등하게 행사하는 '공동체적 경영'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당연한 말로 납득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 지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납득하는지가 성패를 갈라요.

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공동체적 경영'을 하던 기업도,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과두제적 경영'을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과두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영'이기에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된 것이겠죠? 앞에서 이해한 '과두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를 완벽하게 납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앞에서 제시된 '과두제'라는 개념의 정의가 '과두제적 경영'으로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중요 개념의 정의를 연결 지으며 새로운 개념의 정의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③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① #정의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과두제적 경영'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의 정의는 결국 다 같은 말일 것이기에, 앞에서 제시한 키워드인 '소수, 수직적, 효율성'에 맞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수의 경영자'입니다. '소수'라는 키워드 그 자체네요. 이렇게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는 것 역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나아가 '실질적 권한과 정보 독점'은 '수직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수직적 경영'이기에, '소수의 경영자'만이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일종의 카테고리로 인식하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② #재진술

이렇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소수의 경영자'가 중심이 되면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소수가 같은 목표를 향해 경

영할 것이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기업 전략의 장기적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수가 경영진이 되면 각자의 목표가 너무나 달라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소수의 경영진'은 '안정적'인 자신의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에 더 확신을 가질 것이니까요. 또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는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납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정보를 '처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납득'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 모든 정보가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정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이는 선지 판단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③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소수의 경영진'이 '수직적 구조'의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업과 경영진 간의 일체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겠네요. 이번엔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화 관련된 정보가 제시된 것이죠? '소수'의 경영진이 '수직적' 경영을 하니 '효율적'인 여러 대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처럼 '과두제적 경영'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과두제적 경영'이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정의를 더 자세하게 풀어써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납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문단

①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②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③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①~② #재진술 #문제점 제시

'과두제적 경영'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이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수직적 구조'에서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경영진'이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다수의 주주보다 훨씬 센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규모 있는 기업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는 경우,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소수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경영진'이 모두 회사 이익만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니까요. 이들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에 치중하면 권한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③ #사례-원리 연결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면, 거품이 드러나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는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다수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겠죠? 핵심은 '소수의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다수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던 '과두제적 경영'은 이러한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5문단

①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②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③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④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① #해결책 제시

이렇게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여 기업 가치에 손상을 입히고 다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 이외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을 감수할 이유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해결책은 결국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의 경영진'이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③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톡옵션'입니다. 수식된 정의를 확인해 보니,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경영자의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라는 시점을 경영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 그대로, '스톡(stock=주식)'을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옵션(option)'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 '과두제적 경영'이 가진 여러 장점을 심본 발휘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경영을 열심히 해서 1주당 가격을 50,000원까지 올린다면 이를 1,000원에 매수하여 50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굳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동기가 없겠죠?

생각 심화

흔히들 '경영자'라고 하면 회사의 대표를 생각하기 마련이기에, 이들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낯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경영자'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주주'(=주식의 주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인)가 '경영자'일 수도 있지만, 주식을 가지지 않고 경영 행위를 위해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영자'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주'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인적 부인론' 관련 지문에서도 다루어졌고, 2022학년도 LEET언어이해 '소유와 지배의 분리' 관련 지문에서 '주주/경영자'의 구분을 다룬 적도 있으니 해당 지문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합시다. 6월 모의평가에 등장한 개념이 수능에 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④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스톡옵션'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평가'될 때 경영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역시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 추구보다는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데 열중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제시될 때는, 그 해결책이 문제의 어떤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해결책이 훨씬 선명하게 납득될 거예요.

6문단

①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②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③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④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외 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① #해결책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 역시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사적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직접 마련한 제도들도 있나 보네요. '사적/공적'이라는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채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영 공시 제도'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경영'과 관련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설정한 '제도'네요.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영진과 주주들 간의 '정보 불평등'이었습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영 공시 제도'라는 '공적 제도'는 이러한 원인을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또한 기업의 이사회에 회사 바깥(외) 사람을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외 이사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라는 문제점의 또 다른 원인은 '소수의 경영진'이 여러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한을 외부 인사에게도 나눔으로써 '과두제적 경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없애 수 있게끔 하는 '공적 제도'가 '사외 이사 제도'인 것이네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공적 제도들'이라는 말을 보고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나온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사적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8%	2%	3%	3%	4%

4. 밑줄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 판단 과정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과 장단점, 보완책까지. 완벽하네.
해설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대상의 개념, 장단점, 나아가 '사적/공적' 보완책까지 소개하는 것이 이 지문의 흐름이었습니다.

- ②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다.
- ③ 대립하는 유형을 들어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 ④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검토한다.
- ⑤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한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 판단 과정	헛소리네.
해설	모두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선지들이죠?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을 만큼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	4%	6%	86%

5.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이 지문의 핵심 개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 ①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 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수, 수직적, 효율성!
해설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래도 담겨 있는 선지네요.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 ②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안정적 경영이 가능했지.
해설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것,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으로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납득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소수의 경영진'이 '안정적 경영'을 하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 이 역시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으로 이미 납득한 내용입니다. 빠르게 판단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5문단~6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소수의 경영진'은 사익 추구를 위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적/공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지.
해설	이 지문에 제시된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는,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여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경영진'과 다수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둘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곧 다수 주주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다수 주주의 이해는 곧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기에, 둘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지겠죠. '다수 주주의 이해'에 대해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주주'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8%	59%	11%	10%	3%

6. **유평**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①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지.
해설	'스톡옵션'의 핵심은 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겠죠. '스톡옵션'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 ②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공통점이지.
해설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모두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주식을 직접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후자는 주식을 직접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보상을 준다는 것이죠. 공통점을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스톡옵션'

	과 '주식 평가 보상권'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선지였어요.
--	--

③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지.
해설	'경영 공시 제도'는 기업 경영에 관련된 여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여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주는 '경영 공시'를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매도할지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었죠?

④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폐쇄적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해설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곧 '사외 이사 제도'가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말과 같죠?

⑤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모두 '소수의 경영진'에게만 폐쇄적으로 다루어지던 기업의 중요 정보를 경영진 외의 사람들에게도 개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모두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5%	7%	29%	12%	17%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꼼꼼하게 독해하는 것이 먼저겠죠? <보기>의 내용 중에서 '과두제적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 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 X사는 원래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는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의 변화를 꾀한 것이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그런데 경영진이 다른 주주들로 주기적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특징 중 하나인 '실질적 권한과 정보의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는 것을 보니,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과두제적 경영'의 요소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X사는 '과두제적 경영'의 요소와 '공동체적 경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A :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B :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완전한 '과두제적 경영'으로 변화하자는 입장이고, B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잘 입혀놓은 채로 선지를 판단해보도록 합니다.

①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미리 생각한 것처럼, X사는 '과두제적 경영'의 요소와 '공동체적 경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주주가 돌아가며 정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성'이 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두제적 경영'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했던 생각 그대로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	---

- ②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안 바뀌었는데?
해설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은 A의 제안일 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틀린 선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물론 X사는 모든 주주가 경영 이익, 즉 실적에 대한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경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몇 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차피 그 이익을 모두의 입맛에 맞게 분배해야 할 것이니까요.

- ③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행 유지의 입장이 아니지.
해설	A는 현행 유지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르게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으로 고정시켜 완전한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A의 주장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 ④ B는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금 그대로 수평적으로 하자는 거잖아.
해설	X사는 현재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지요? B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선지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 ⑤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해설	A는 완전한 '과두제적 경영'으로 변화하자는 입장이고, B는 '과두제적 경영'과 '공동체적 경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A와 B 모두 X사가 안정적인 '과두

	제적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⑤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⑥ 문제해결형 지문 : 결국,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면 해결책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핵심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재진술되는 정보를 납득하고,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요구한 지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당연한 말로 '납득'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는지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의 전개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 읽기>

2025.06 [8~11] 과학 '플라스틱의 형성 원리' ☆☆☆

1문단

①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②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①~② #정의 제시 #화제 제시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글입니다. '플라스틱'은 그 어원처럼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중요 개념의 정의이니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나아가 이 지문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제를 구체화할 준비도 해봅시다.

2문단

①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②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한다. ③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④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⑤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⑥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플라스틱'은 '단위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곧 '거대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대 분자'는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②~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단위체'들이 '플라스틱'과 같은 거대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것이 '공유 결합'이네요. 나아가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한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정의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이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일'과 '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는 것 역시 당연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으니, 그 결합력 역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안정'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인식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에서는 '안정' 상태를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로 정의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결국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한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비로소 '안정한 상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게끔 다른 원자의 전자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의 경우, 다른 원자와의 '이중 결합'을 통해 2개의 원자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추가하여 8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⑥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탄소 원자'라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추가하면 총 8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어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4개의 전자를 추가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사중 결합'을 해도 되겠지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섞는 형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탄소 원자'를 통해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대한 분자'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분자'는 이 지문의 화제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니까요. 즉, '탄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통해 '플라스틱'이라는 '거대한 분자'의 골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문단은 이 한마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안정'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에 주목하면서, '안정한 상태'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정의되는 중요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지문 독해 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문단

①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②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③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①~③ #정의 제시 #재진술

'플라스틱' 중에서도 '폴리에틸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해요.

‘에틸렌 분자’가 ‘단위체’이고, ‘폴리에틸렌’은 ‘거대한 분자’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되는 모습도 나타날 것이구요. 과학 · 기술 제재의 지문에서는 이렇게 초반부 정보를 확실하게 납득하고 계속해서 끌고 오며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4개로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입니다. 따라서 ‘공유 결합’을 통해 총 8개의 전자 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여 2개의 전자를 가져오고, 또 각각의 ‘탄소 원자’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하여 2개의 전자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탄소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4개임을 다시 떠올리고, 결국 이 ‘탄소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에틸렌 분자’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틸렌 분자’가 ‘중합’ 과정을 거치면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대한 분자’가 되는 것이구요.

나아가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납득이 불가능한 정보이니, 따로 체크해놓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새로운 정보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정한 상태’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결국 과학 · 기술 지문의 핵심은 초반부 정보의 반복임을 잊지 마세요.

4문단

①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②**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③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④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⑤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⑥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⑦**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⑧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①~③ #과정 제시 #재진술

이렇게 ‘에틸렌’을 ‘중합’시켜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에서 1개의 전자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단일 결합’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탄소의 이중 결합’ 중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했는데, 이 결합을 끊어 전자를 가져와 ‘단일 결합’함으로써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④~⑥ #과정 제시 #재진술

이렇게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었지만, ‘이중 결합’이 끊긴 하나의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수가 7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 ‘탄소 원자’는 또 다른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다시 그 ‘탄소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겠고, 다른 ‘탄소 원자’가 공유되지 못해 홀로 남은 전자를 갖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에 연결된 ‘탄소 원자’,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탄소 원자’, 또 연결된 ‘탄소 원자’…… 이런 식으로 ‘중합된’ ‘에틸렌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슬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의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해서 ‘안정한 상태’이던 ‘탄소 원자’의 전자를 빼앗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활용하여 차분하게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⑦ #과정 제시 #재진술

그런데 이러한 사슬이 두 개인가 봅시다. 참 불친절하긴 하지만, ‘성장하는 두 사슬’이라는 표현을 보면 두 개의 사슬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7개인 ‘탄소 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단일 결합’하면, 각각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인 ‘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결합하려는 원자가 없게 되므로,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되겠죠. 어렵긴 하지만, 철저하게 지문 내용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스스로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끌고 오는 것이예요.

⑧ #화제의 흐름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엄청난 정보들은 모두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거대한 분자) 화합물’, 즉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틸렌 분자’들이 이렇게 사슬이 결합하는 ‘중합’ 과정을 거치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화제의 흐름이 명확하게 잡히는 느낌이 드시죠?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방식’이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에틸렌 분자’의 ‘중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초반부 정보를 처리하면서 확실하게 체크했던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끌고 오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초반부 정보를 끌고

오는 독해 태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지문을 뚫어내는 핵심 포인트이니깐요.

5문단

①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②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③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④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⑤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플라스틱’은 ‘단위체’들이 ‘중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입니다. 따라서 그 길이가 길겠죠? 이에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즉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길이가 워낙에 길다 보니 ‘결정 영역’이 아닌 경우, 즉 질서정연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결정 영역’의 비율을 조절하면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의 사슬 배열이 질서정연한 정도에 따라 당연히 그 성질이 다를 것이니까요.

④~⑤ #재진술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최대한 납득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결정 영역’이 많다는 것은 ‘플라스틱’의 분자 배열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배열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 손상되기 쉬울 것이고, 이에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겠네요. 나아가 일정한 배열로 뽁뽁하게 들어설 것이니 불투명해질 것이구요. 냉각고에 음료수를 질서정연하게 넣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이 경우 냉각고 안의 여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여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단단한 ‘플라스틱’이 필요하면 ‘결정 영역’의 비율을 높이고, 쉽게 변형되어야 하는 ‘플라스틱’이 필요하면 ‘결정 영역’의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말이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그냥 넘어가는 학생과, 최대한 납득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독해 시간’은 후자가 조금 더 길겠지만 ‘문제풀이 시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짧을 것입니다. 납득에 실패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최대한 납득해 보려고 시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납득하는 순간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4%	7%	70%	16%

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게 플라스틱이 되지.
해설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가 곧 이 지문의 주인공인 ‘플라스틱’이었죠?

②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에틸렌 분자’는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하여 ‘안정한 상태’가 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하는 모습이죠?

③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플라스티코스!
해설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명칭이에요. ‘플라스틱’이 정의를 고려할 때, 그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④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히려 불안정해지지.
해설	일단 ‘에틸렌’은 애초에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에서 분해된 분자

에 의해 '에틸렌 분자' 속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하나가 끊겨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이 지문의 핵심 정보였던 '에틸렌의 중합 과정'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⑤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약한 걸 끊는 거였지.
해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 중 더 약한 '이중 결합'을 끊어내는 것이 '에틸렌의 중합 과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1%	37%	14%	17%	11%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중합 과정

- 이 지문의 핵심 정보인 '에틸렌의 중합 과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쪽에만 있지. 다른 한쪽은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이고.
해설	㉠ 과정의 사슬은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가 '에틸렌'이 가진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슬의 한쪽 끝은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 다른 한쪽 끝은 '불안정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지게 되죠. 즉, 성장 중의 사슬의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끝부분'이라고 해야 옳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두 사슬의 이 '한쪽 끝부분'이 붙어 '안정한 상태'가 되면 사슬의 성장이 끝나는 것이었죠?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②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이중 결합을 끊어서 전자 하나씩 뺏어오지.

해설	1번 선지에서든 생각했듯이, 사슬의 끝부분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에게 전자를 하나 빼앗겨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7개밖에 없는 '탄소 원자'였죠? 이 '탄소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에틸렌'이 가진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하나를 끊어 버리는데, 이는 이렇게 끊긴 '탄소 원자'의 전자 중 하나를 가져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를 8개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 '하나'를 가져와 공유하는 것을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사슬의 중간에는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 즉 '단일 결합'이 존재할 것입니다. ㉠을 완벽히 이해해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를 바랍니다.
----	--

③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야 계속 안정해지려고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을 일으키지.
해설	'상태가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지닌 (에틸렌) 분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안정한 상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에틸렌 분자'를 건드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④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계속 하나씩 모자라게 되니까.
해설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즉 불안정한 상태의 '탄소 원자'는 사슬의 끝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슬의 끝과 만나 '단일 결합'하면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는 것이죠.

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래 두 쌍을 공유했는데 한 쌍이 사라진 거지.
해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은 원래 '이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 혹은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에 의해 이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이 끊기게 됩니다. 두 쌍의 결합 중 하나가 끊겼다는 것은, 한 쌍의 결합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된 것이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사슬의 성장 과정이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8%	62%	12%	9%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㉔와 ㉕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㉓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㉔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㉕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 ㉔는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로,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든 것입니다. 즉,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폴리에틸렌'인 것이죠. 반면 ㉕는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즉 질서정연하게 사슬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폴리에틸렌'이죠?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불투명하지만, 밀도가 높아 단단하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을 미리 납득한 상태죠? 가볍게 답을 골라봅시다.

- ①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②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로는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③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군.
- ④ ㉕보다 ㉔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 ⑤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㉕보다 ㉔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번 빼고 다 반대로 써놨네.
해설	유연하게 하거나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끔 투명하게 하려면 ㉕보다는 ㉔가 적합할 것이고,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을 것이며,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할 것입니다. 모두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들이죠? 한편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이에 대한 민감성이 더 낮은 ㉕가 ㉔보다 나을 것입니다. 3번 선지를 제외하곤 모두 반대로 써 놓은 선지들이네요. 가볍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3%	71%	2%	2%

11.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㉓

- ①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
- ②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다.
- ③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
- ④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 ⑤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초반 정보 건지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건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불친절한 지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초반부에 제시된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통해 쭉 이해할 수 있게끔 써 놓은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죠? 철저하게 지문 내용만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도록 합시다. 평가원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에서 이 정도의 이해를 요구할 것이니까요.

생각의 전개 <추상적인 원리, 구체적인 사례>
2025.06 [12~17] 인문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

(가) 1문단

①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②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① #주장 제시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를 해명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선'과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여 누군가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옳다/그르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윤리학'의 목표였던 것이죠.

②~③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화제 제시

하지만 윤리학은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에이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이어'라는 사람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에이어'는 이 한마디만 반복해서 할 것이니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리 적합성'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참'인지 아닌지, 즉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적합'한 '성'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없기에,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목표로 했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이어'의 이 주장을 재진술하며 풍부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문 지문에서 한 사람은 하나의 주장만 펼칩니다. 그 주장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순간이니,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가) 2문단

①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②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③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④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⑥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주장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을 재진술합니다.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은 2017학년도 수능 '과인의 총체주의' 관련 지문에서 제시된 '분석 명제/종합 명제'와 유사한 개념이기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것이 '분석적 문장'이고, 경험적 관찰을 '종합'하여 검증되는 문장이 '종합적 문장'이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어'는 결국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죠? 결국 '에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②~④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우선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도덕 문장'이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 문장'이 '종합적 문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리 적합성'을 따지려 했을 것이니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덕 문장'은 왜 '분석적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야 합니다. 즉, '선'을 '정의'하여 '분석'했을 때 '선은 A이다.'라는 문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입니다. '정의'하여 '분석'하려고 해도, '선' 자체는 말 그대로 그저 '선'일 뿐인 단순 개념이기에 이를 통해 '선은 A이다.'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선은 A이다.'와 같은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이 정말 'A'와 관련된 것이 맞는지조차 '분석'할 수 없으니까요.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한편,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은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즉, '도덕 문장'은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닌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에이어'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어'의 주장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처럼 새로운 정보가 나오더라도,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핵심적인 주장 한마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를 떠올리며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 3문단

①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②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③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④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⑤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⑥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⑦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⑧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⑨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① #주장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계속해서 '에이어'의 주장입니다. 그는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어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에이어'의 핵심 주장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생각을 잊지 않은 채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주장 제시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에이어'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 '문장'과 도덕 '용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곧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용법을 가지는 것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 도덕 '용어'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이라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전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용법'이고 후자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용법'이네요.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읽어봅시다.

④~⑤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 즉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도덕 문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정말로 도둑질을 하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즉,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종합적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렇게 앞에서 이해한 원리를 사례에 최대한 연결지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해요.

⑥~⑦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화제의 흐름

다음은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 즉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에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의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요. '에이어'의 입장에서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에이어'의 핵심 주장이 또 재진술된 것이네요. 나아가 '표현적 용법'='도덕 문장'이라는 주장은 '정서적 의미'='도덕 문장'이라는 3문단 초반부의 주장을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구요.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⑧~⑨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러한 '에이어'의 주장대로라면,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을 보자마자, 1문단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라는 말이 떠올라야겠지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도덕 문장'을 통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에이어'의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지독하게 같은 말만 반복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례를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라는 원리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리 적합성', '종합적 문장', '정서적 의미'와 같이 해당 사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념들까지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인문 제재의 지문은 다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며 정보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1문단 (1)

①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②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③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진 긍정식이라 한다. ④전진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①~② #화제 제시

갑자기 '논리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결국 하나의 지문일 것이기에, 이는 '에이어'의 주장과 연관될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비판하기도 한다는 ‘윤리학의 특정 견해’가 되겠지요? 즉, (나)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통해 ‘에이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③~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논의는 ‘전건 긍정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네요. ‘전건 긍정식’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관련 지문에서도 등장했던 개념이니 익숙하게 느껴셔야 합니다.

아무튼,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전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P이다.’ 역시 참이면 자연스럽게 결론 ‘Q이다.’가 반드시 참이 된다는 ‘논리학’의 법칙입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민재가 남자라면 군대에 간다.’와 ‘민재는 남자다.’라는 두 명제가 참인 경우 ‘민재는 군대에 간다.’라는 결론 역시 반드시 참이 된다는 식으로 스스로 사례를 만들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인 원리는 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 1문단 (2)

⑤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⑦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⑧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⑨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⑩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⑪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⑫이 쟁점에 대해 헝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⑤~⑦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표현적 용법’을 통해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추상적인 원리가 제시된 모습입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를 위해 ‘굴은 맛있다.’라는 문장을 사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여기서는 전건)가 되면, 이는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굴이 맛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술’하는 것일 뿐, 화자가 굴을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를 다시 추상적인 원리로 정리해봅시다. ‘P이다.’(굴은 맛있다.)가 감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는 굴이 맛있다는 가정의 의미(=기술적 용법), 후자는 굴을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정서적 의미’(=표현적 용법)를 담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전건 긍정식’임에도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⑨~⑩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친절하게 또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표절은 나쁘다면(P이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Q이다.) 표절은 나쁘다.(P이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Q이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전건 긍정식’의 정석이니깐요. 하지만 여기서 ‘표절은 나쁘다.’(단독으로 진술된 P이다.)가 감정을 표현한 ‘정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조건문 속 ‘표절은 나쁘다.’와 단독 문장 ‘표절은 나쁘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결론이 참임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전건 긍정식’의 핵심은 두 전제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경우 위 논증이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된다는 것이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입니다. 제시된 두 사례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⑪~⑫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나)의 화제에 따르면, 이 의문은 ‘에이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이어’의 주장이 등장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아무튼,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애초에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도덕 문장’이 사용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나아가 ‘에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전건 긍정식’은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 역시 ‘참’이라는 법칙인데, 애초에 전제 중 하나를 ‘참’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도덕 문장’을 ‘전건 긍정식’의 예외로 두어야 ‘에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덕 문장’만을 ‘전건 긍정식’의 예외로 두는 식의 결론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에이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겠지요? ‘에이어’의 주장을 따르면 직관적으로 타당한 ‘논리학’의 법칙 하나를 불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큰 불편함이 따르니, 결국 ‘에이어’의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화제와 엮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헝크스’라는 사람이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맥락상 ‘헝크스’는 ‘에이어’의 주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이어’에 대한 비판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헝크스’가 과연 뭐라고 할지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생각 심화

정확하게 말하면, ‘굴은 맛있다.’와 ‘표절은 나쁘다.’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둘 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그저 화자의 선

호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문장일 뿐이고 후자는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사용된 '도덕 문장'이니까요. 이에 '굴은 맛있다.'라는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논리학'에서 제기하는 의문을 설명하고, '표절은 나쁘다.'라는 구체적인 '도덕 문장'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에이어'의 주장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헝크스'가 전개할 논의는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에 대한 것으로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헝크스'가 개입한 이 지문의 핵심 '쟁점'은 '에이어'의 주장에 대한 것이니까요.

실전에서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복습하는 과정에서라도 정확하게 독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문장에는 없는 '정서적 의미'라는 표현을 떠올리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사례들을 원리와 연결지어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했죠? 잘 해내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 2문단 (1)

①'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쁜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②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③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④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⑤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⑥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①~②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헝크스'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헝크스' 역시 한마디만 할 것이니 그 주장을 정확하게 인지해야겠죠? 먼저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집니다. 차분하게 납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나쁘다.'와 같은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그런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즉 조건문의 일부로 쓰이든 '판단적'이라고 합니다. 조건문의 일부로 쓰여 단순한 '가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역시 '나쁘다.'와 같은 내용과 관련이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자가 표절과 같은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은 화자의 문장 진술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죠. 어쨌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으니까요.

④ #주장 제시 #비교/대조 #재진술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즉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는 것이 '헝크스'의 생각입니다. '도덕 문장' 역시 대상에 화자의 정서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판단적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화자가 부여한 속성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게 가능하기는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덕 문장'에도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헝크스'의 주장은 '에이어'와는 대조된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일단 '도덕 문장' 역시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가능하며 '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 '도덕 문장'을 '전건 긍정식'의 예외로 둘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앞 문단의 내용과 엮어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어쨌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조건문에 포함되어 진술되든 단독으로 진술되든 '판단적 문장'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는 2번 문장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헝크스'는 계속해서 이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는 것이 '헝크스'의 주장입니다. '도덕 문장' 역시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판단적 문장'의 하나라는 점에서,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기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는 것이죠.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을 멋지게 해결한 모습이에요? '논리학'에서는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을 '헝크스'의 주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문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체크했어야 합니다.

(나) 2문단 (2)

⑦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⑧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⑨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⑩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⑦~⑩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러한 '헝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와 단독으로 진술된 'P이다.'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기에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들을 구분하여 '두' 전제로 삼을 필요도 없기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굴은 맛있다.'는 사례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굴은 맛있다.'는 문장 자체는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지만, 전자는 그 '판단적'이라는 '본질'이 발현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논리학'에서 이 둘이 다르다는 오해를 할 것이지만, 사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같기에 '도덕 문장'이 포함된 '전건 긍정식' 역시 타당하다는 것이 '헝크스'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생각 심화

이 문단에서 초반부는 '에이어'의 주장이 폐기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기에 '표절은 나쁘다.'라는 '도덕 문장'에 국한시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후반부는 '판단적 문장'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에 '굴은 맛있다.'와 같이 '도덕 문장'은 아니지만 '판단적 문장'이기는 한 문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앞 문단의 '생각 심화'와 엮어서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⑨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본질'을 발현하지 못할 뿐, 여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서술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적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는 경우가 다르긴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헝크스'가 일관되게 주장하던 내용이니깐요.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보량을 줄여내고 납득에 성공해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7%	16%	40%	25%

12.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는 '에이어'의 입장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경우엔 종합적 문장이었지.
해설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닌 '종합적 문장'으로, 검증이 가능해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도덕 문장'으로 오해해 '도덕 문장'이 '진리 적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지.
해설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에이어'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담은 어조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다름없습니다. 즉, 둘 다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1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석적 문장의 정의네.
해설	지문에 제시된 '분석적 문장'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에이어'는 주어의 '정의'를 통해 술어가 그 주어에 내포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주어-술어의 의미 관계'에 있는 문장을 '분석적 문장'이라고 정의했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같은 의미를 담은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을 기술하면 애초에 표현적 용법이 아니지.
해설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기술적 용법'이 사용된 것이지 '표현적 용법'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라, '사실 기술 / 감정 표현 여부'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되는 것이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기술'과 '표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 선지네요.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p>‘에이어’는 사람들이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도덕 문장’으로 착각한 것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를 의미하기에,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에이어’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p>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12%	22%	19%	36%

13.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 [A]는 ‘행크스’의 주장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행크스’는 ‘판단적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든 똑같이 ‘판단적 본질’을 가지기에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문 제재의 지문답게 각 인물의 주장만을 집요하게 묻고 있죠?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굵은 맛이었다면 굵은 비짜다.’에 포함된 ‘굵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8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지.
해설	<p>‘굵은 맛있다.’는 ‘판단적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된 경우라도, 그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크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틀린 선지네요.</p>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1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언제든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지.
해설	<p>‘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판단적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든 그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 동일한 내용을 가집니다. 또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기에,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지 않았을 때에도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봐야 정확하겠네요.</p>

- ③ ‘굵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8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니까.

해설	<p>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굵은 맛있다.’와 같은 ‘판단적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도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즉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습니다.</p>
----	--

- ④ 화자는 굵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체로 ‘굵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지.
해설	<p>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문장이 어떻게 쓰이든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었습니다. ‘행크스’의 주장을 이루는 핵심 전제를 무시한 선지이기에 틀렸다고 해야겠네요.</p>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7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본질을 발현하지 못할 뿐, 잃지는 않지.
해설	<p>‘표절은 나쁘다.’를 말하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은 해당 문장이 조건문에 포함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가정’을 하는 것이기에, 화자가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때에도 그 문장의 ‘판단적 본질’ 자체는 유지된다는 것이 ‘행크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p>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7%	18%	53%	14%

14.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8번~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가정을 에이어가 부정했지.
해설	<p>‘에이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었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p>

	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기술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음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는 선지죠?
--	--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1번 선지와 엮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에이어'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었습니다.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에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에이어'의 주장 그 자체였죠?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던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3번 문장, (나) 1문단 8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가 그렇게 주장할 리가.
해설	'에이어'는 애초에 '도덕 문장'에는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것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더라도 '진리 적합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에요. 이러한 '에이어'의 주장 때문에, '논리학'에서는 '전건 긍정식'에서 '도덕 문장'을 예외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5번 문장, (나) 2문단 9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행크스'의 핵심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5%	16%	19%	24%	16%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몇몇 윤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P이면 Q이다.'의 P는 이와 달리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않기에 동일하지 않고, 결국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 'Q이다.'가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답을 골라봅시다.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타당해 보이는데 왜 비판이야.
해설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든 그러든, '전건 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리학 법칙입니다. 실제로 (나) 1문단 9번 문장에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도덕 문장'이 쓰인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하기는 했죠. 물론 ㉠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은 (나)의 화제 그 자체이므로 맞지만, 그 이유를 잘못 설정하였기에 틀린 선지네요. 정확히는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이 사용된 '전건 긍정식'의 실질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을 '에이어'에 대한 비판으로 이끄는 요인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에이어'를 비판한다는 흐름을 잡는 것을 넘어, 어떤 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복습하도록 합시다.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의 견해가 옳으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지.
해설	㉠이 제기된 상황에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 즉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우 명제가 2번 선지죠? 지문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대우 명제이니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좋고, 대우 명제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것은, '도

	<p>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된 경우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 입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될 때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질 것이고, 이에 '도덕 문장'이 포함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해질 것이니까요. 이런 생각의 흐름에 따르더라도 적절한 선지임을 알 수 있겠네요.</p>
--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하여 제기된 의문입니다. '에이아'의 주장을 따르면 이와 달리 두 전제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결국 ㉠이 주장하는 바였죠?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굵은 맛있다!
해설	㉠은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굵은 맛있다.'처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생각 심화'를 통해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선지화된 모습 이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을 것입니다.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헝크스의 입장이지.
해설	'도덕 문장'은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은 '헝크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애초에 '도덕 문장'이 쓰이더라도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의 내용이 다르지 않기에, 애당초 ㉠이 발생하지 않겠죠? 끊임없이 인물의 주장을 정확히 체크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2%	11%	21%	28%	18%

1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선은 좋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 <보기>부터 꼼꼼하게 독해해봅시다. '자선은 좋다.', '폭력은 나쁘다.'는 모두 자선 및 폭력에 대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라는 조건문을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아, <보기>의 글쓴이 역시 '에이아'의 주장처럼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가진 문장을 '도덕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라는 조건문은 전제와 결론 모두 태도로 이루어져 있는,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는 주관적 태도들이기에 참, 거짓이 없다는 것이 <보기>의 주장이네요. 이 역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에이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와 '자선은 좋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좋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 자선은 좋다. 따라서 봉사는 좋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이때,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와 '자선은 좋다.'라는 표현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의 글쓴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전제가 '참'이라는 표현 대신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에 동의하는 주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봉사는 좋다.'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제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결론은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일관적'이라는 것이 <보기>의 글쓴이가 가진 생각입니다.

결국, <보기>의 글쓴이에 따르면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 자선은 좋다. 따라서 봉사는 좋다.'라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제에 모두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론에도 반드시 동의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죠. 이는 '논리학'에서 제기된 문제를 '에이아'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면서 '헝크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까다롭게 출제되었기에 <보기>를 정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정리해놓은 상태로 가볍게 답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해설	<p>‘도덕 문장’이 태도가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에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즉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보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상충한다고 하고 있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보기>는 상당히 어렵게 제시해놓고 답은 쉽게 나오는 형태로 출제했네요. 앞으로는 문제 역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니, <보기>의 완벽한 정리 역시 놓치지 말고 챙겨가도록 합시다.</p>
----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기>를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p><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죠? ‘전건 긍정식’과 같은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학’에서의 주장인데, <보기>는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며 이와 상충되는 주장을 했습니다.</p>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적인 윤리학과 상충하지.
해설	<p>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장입니다. ‘에이어’와 <보기>의 글쓴이는 이에 대해 ‘도덕 문장’은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상충된 주장을 하죠?</p>

④ ‘굳은 맛있다.’가 굳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1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태도에 대한 것이지.
해설	<p>‘굳은 맛있다.’가 굳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나)의 주장과,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글쓴이는 모두 이와 같은 문장들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본다는 점에서 상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뻗어나가는 추가적인 주장에서는</p>

	(나)와 <보기>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 주장 자체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였지.
해설	<p>‘에이어’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용어’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기>의 글쓴이는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들의 주장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p>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4%	4%	5%	3%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 : 수색하는
- ② ㉡ : 제지하지
- ③ ㉢ : 전파했다
- ④ ㉣ : 발산하는
- ⑤ ㉤ : 공개하여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한마디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지문이었습니다. 인문 제재의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듯 다른 말들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지문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 것은 확실하니, 해설지의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다 생각해낼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수능에 출제되는 인문 제재의 지문은 쉬웠던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생각의 전개 <고전소설 클리셰>

2025.06 [18~21] 고전소설 '이대봉전' ☆☆☆☆

<보기> 확인

20번 문제의 <보기>는 딱히 지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네요. 제문(제사 지낼 때 쓰는 글), 표문(임금에게 올리는 글)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될 것이라는 미시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21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이 지문의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의 주인공의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고 해요. 이들은 모두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장 소제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지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며,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최근 고전소설의 경향이기도 한데, 모든 어휘를 알 수 없으니 최대한 맥락과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줄거리 등을 통해 그 뜻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읽어봅시다.

'장 소제'가 남복을 벗고 여복을 '개착'(옷을 갈아입음)했다고 합니다. '개착'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남장을 했던 여성 인물 '장 소제'가 다시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상황을 그릴 수 있겠죠? 여성 인물이 남장하는 것은 고전소설에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깐요. 아무튼,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를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금로(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그릇), 영위(죽은 사람을 기리는 위패)와 같은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제문'을 보고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문'이라는 단어는 2014학년도 9월 모의 평가 A형에도 출제되었던 단어이면서, '제'사를 위한 '문'장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걸 못했다면, 남장을 벗은 '장 소제'가 어떤 글을 읽고 있다는 상황 정도만 체크한 채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 애재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장 소제'는 자신을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으로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장 소제'의 이름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장애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채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아무튼 '장 소제'는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고, 앞에서도 '시랑의 영위'라고 표현했으니 '시랑=이부 시랑 이 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시랑'이 높은 사람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 진진지연(秦晉之緣): 혼인의 인연.

소첩(장애황)의 부친, 즉 '장 한림'은 대인, 즉 '시랑'과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랑'은 '귀자'라는 아들(子)을 두었고, '장 한림'은 '장애황'을 낳은 것이죠. '장 한림'은 신기한 꿈을 꾸고서 '시랑'과 혼인의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애황'과 '시랑'의 아들이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시운이 불리하여 '시랑'은 간신의 모해로 유배를 갔고, '장 한림'은 '시랑'의 억울함과 '장애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중도에 죽어 버린 상황입니다. '장애황'의 '모친' 역시 죽은 상황이구요. 예비 시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유배가거나 죽은 '장애황'은 엄청 외로웠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쏟아지는 고전소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인물관계가 잡히게끔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인물관계를 체크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어려워요. '장애황'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물관계가 잡힐 것입니다.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번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룩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전대 존령은 흠향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와중에 간적(간악한 도적) '왕희'는 '장애황'에게 혼인을 강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악인 한 명이 등장하는 고전소설의 클리셰를 생각하면, '왕희'가 '시랑'을 유배 보낸 간신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장애황'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원수와 혼인하는 것은 죽어도 싫을 것이기에 남장을 하여 '번복 도주'한 것이네요. 이런 감정과 행동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남장을 한 '장애황'은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며 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수같은 '왕희'를 없애 원통함을 풀고 '시랑'과 그의 아들인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즉,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 가치를 실현

하려고 한 것이었죠. 공을 세워서 힘이 생기면 ‘시랑’과 ‘공자’를 찾는 것이 쉬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사신’에게서 ‘시랑’ 부자가 형적(남은 흔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수증고혼(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장애황’은 슬퍼하며 ‘시랑’에게 ‘제문’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형적’, ‘수증고혼’과 같은 단어를 모르더라도, ‘제문’을 올리는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해 ‘시랑’ 부자가 죽었으리라 생각하는 ‘장애황’을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 소설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줄거리 파악이 아닙니다. 중심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줄거리를 파악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기보다는, ‘장애황’의 내면세계 중심으로 읽고 공감했더니 자연스럽게 줄거리가 파악되었다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흥노의 머리 뺨 것을 봉하여 정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한편, ‘이 공자 대봉’은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황성’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공자’라는 말을 보고서 ‘시랑’의 아들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죽은 줄 알았던 ‘시랑’ 부자는 사실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흥노의 머리를 베는 공을 세우면서 말이예요. 전후사연을 적어 ‘성상’에게 상소를 올린 상황인데, 아직 그 상소를 받지 못한 ‘성상’은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장애황’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상’이 직접 신경을 쓸 만큼 주인공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황’이 올린 상표가 ‘성상’에게 도착했습니다. 이를 반갑게 열어 보는 ‘성상’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에 공감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 갑시다.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담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희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나, 이는 다 성상의 넓은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장애황’이 바닷가에서 제를 올리는 상황, 즉 (중략) 이전의 상황에서 보낸 상표로 보입니다. ‘제문’을 올린 뒤 슬퍼하고 있던 ‘장애황’은 천우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조(하늘과 신이 도움)로 ‘시랑’의 부인인 ‘양 씨’를 만납니다.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 둘은 서로 기뻐하고, ‘장애황’은 이를 ‘성상’의 덕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는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는, 전형적인 고전문학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장애황’은 이 와중에 ‘성상’에게 집안의 원수 ‘왕희’ 부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사적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보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죠?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뢰하여 열어 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은 황궁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담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저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성상’은 이러한 ‘장애황’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왔어요. 이상하게 여긴 ‘성상’은 이를 열어보는데, 이는 ‘이대봉’, 즉 ‘시랑’의 아들이 올린 것입니다. ‘성상’ 입장에서 는 궁금해하던 이들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네요.

우리가 미리 생각한 대로, ‘이대봉’ 부자는 ‘왕희’의 모함으로 유배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유배지로 가던 중,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시랑’을 결박해 물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대봉’ 역시 이를 따라 물에 뛰어든었는데,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백운암’에서 ‘팔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비현실적 존재의 조력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중략)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어쨌든 ‘장애황’의 생각과 달리, 다행히 ‘시랑’ 부자는 살아있네요.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옵니 울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홍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탁갑과 동돌주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흥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흥노를 베었나이다.

비록 모함에 빠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대봉’은 국가의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타처에 오래 있는 것이 울지 않다고 생각한(사실 임금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럴듯한 핑계를 댄 것이겠죠?) ‘이대봉’은 ‘백운암’을 떠나 ‘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릉’의 영혼, ‘관

공'의 영혼 등 비현실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장비를 얻는 모습 이죠? 이렇게 장비를 갖춘 '이대봉'은 '황성'으로 향하려다가, '홍노'가 역모를 꾀하여 어가(임금의 수레)가 '금릉'으로 행했다는 말에 분심을 이기지 못하여 '홍노'를 비롯한 역적들을 처단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클리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셰를 활용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어가'와 같은 단어들의 뜻도 유추할 수 있어야 해요.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 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를 만났사 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 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엿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그렇게 다시 '황성'으로 돌아오는 길, '이대봉'은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무인절도'에서 '시랑'을 만납니다. 여기서도 '성상'의 덕을 칭송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나아가 집안의 원수인 '왕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까지 '장애황'과 똑같습니다. '성상'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던 이들의 소식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들의 원수까지 정확하게 특정했으니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1%	18%	60%	7%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용궁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중원으로 가는 길에 얻은 것인데?
해설	'이대봉'은 '백운암'에서 '중원'으로 향하는 길에 '이릉'의 영혼 등 비현실적 존재들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습니다. 이곳이 '용궁'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농서'와 같은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은 홍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홍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 황성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황성은 다 끝내고 도착한 곳이잖아.
해설	'황성'은 현재 '성상'이 계신 곳으로, '홍노'가 침범한 곳은 맞습니다. 이에 어가가 '금릉'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죠. 나아가 '황성'은 '홍노'를 베는 등 공을 세운 '이대봉'이 '시랑'을 모시고 나서야 도착한 곳입니다. 즉, '황성'은 '이대봉'이 '홍노'를 처단한 다음에야 도착한 곳이기에 허용하기 어려운 선지네요. 정확하게는 '서릉도'에서 뱃 것이지만, 이를 기억하기보다는 '이대봉'의 행적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복속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시랑 부자가 유배간 것이지.
해설	'장 한림' 부부가 아닌 '이 시랑' 부자가 유배를 간 것이죠? '장애황'의 부친인 '장 한림'은 억울하게 유배를 간 '시랑' 때문에 원통해하며 죽은 인물일 뿐입니다. 지문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런 인물관계가 '자연스럽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백운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 그렇지.
해설	'백운암'은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대봉'이 팔 년을 의탁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던 '이대봉'은 국가의 죄인 신분으로 타처에 오래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중원'으로 떠났었죠? 이런 '이대봉'의 심리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공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지, 줄거리만 파악하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할 것입니다. 수능 소설에서는 공감 능력을 묻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 규릉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가가 도망간 곳이지.
해설	‘금릉’은 기본적으로 여가가 도망간 곳입니다. 나아가 ‘동돌수’는 ‘금릉’에서 ‘이대봉’에게 죽임을 당한 했지만,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성상’을 잡으러 갔다가 ‘이대봉’에게 당한 것이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8%	65%	11%	10%

19. [장 소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지문의 주인공인 ‘장애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시된 제문, (중략) 이후에 제시된 상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장애황’은 자신의 부친인 ‘장 한림’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시랑’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근거가 되어 허용할 수 있겠죠? 결국 ‘장애황’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친’, ‘대인’과 같은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 즉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받았다는 서술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대인’의 정체만 밝혔다면 당연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닌데?

해설	‘장애황’의 부친인 ‘장 한림’은 ‘시랑’의 억울함과 ‘장애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기다가 죽었습니다. 혼약이 어그러진 것은 ‘장애황’의 앞길이 그릇됨과 억지로라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 ‘장 한림’은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닌 ‘억울한 유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죽은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장 한림’의 원통함의 근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묻고 있네요. ‘장 한림’이 왜 원통해하고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될 정도로 힘들었는지, 그 감정에 공감했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공감’이라는 중요 포인트에 주목하세요.
----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번복 도주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남장을 한 이유였지.
해설	집안의 원수인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자 이에 수치심을 느끼고 남장하여 도망가는 ‘장애황’의 모습, 미리 생각하고 공감했던 내용이죠?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장애황’은 천우신조로 만난 ‘이 시랑’의 처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합니다. 비록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지만, 약혼이 억울하게 깨진 사이이니 사실상 시어머니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애황’의 입장이었죠. 이에 기뻐하는 ‘장애황’과 ‘양씨’의 모습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가볍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1%	49%	25%	9%

2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보 기>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과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 _____ [A] _____

선생님 : 네, 맞아요.

장 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사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며,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며,

- <보기>의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를 고려하면서 ㉠, ㉡를 정리해봅시다. ㉠은 '장애황'이 '시랑'에게 바치는 제문으로, '장애황' 부녀 및 '시랑' 부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가 제시되는 글입니다. ㉡는 '이대봉'이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으로, '이대봉'과 '시랑'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적혀 있지?

① ㉠은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은 '장애황'이 망자로 생각하고 있는 '시랑'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미리 생각했듯이 '이대봉'이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입니다.

② ㉠은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은 '장애황'이 '시랑'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한 제문이고, ㉡는 '이대봉'이 '성상'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의 경과를 알려 '왕희'를 처단해달라는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③ ㉠와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낮추는 표현이 있는데?

해설	㉠에서 '장애황'은 스스로를 '소첩'(결혼한 여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표현했고, ㉡에서 '이대봉'은 스스로를 '죄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글의 대상이 예비 시아버지 및 임금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자신을 낮춘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 시랑 부자는 살아있었지.
해설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인 '장애황'은 '시랑' 부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있었죠? 이러한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요.

⑤ ㉠와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이 공 영위 앞에 아리나이다.'라며 시작했고, ㉡는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탑 하에 바치옵나이다.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5%	12%	15%	48%	10%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혼약은 사적 목표니까 맞지.
해설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황'은 혼약이라는 '사적 목표'를 동력으로 삼아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공을 세워 지위가 높아지면 '시랑' 부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공감했던 내용이죠?

-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국법을 먼저 제시했네.
해설	'장애황'은 '성상'에게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국법을 사용한다는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원수를 갚겠다는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Q

Q : <보기>에서 공적 가치의 권위는 '공적 활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것은 '장애황' 자신의 '공적 활약'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아직 '장애황'은 '왕희'를 잡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보기>를 참고한 감상이 아닌 것 아닐까요?

A : 말씀하신 <보기>의 내용은 '공적 가치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공적 활약을 펼침으로써 '공적 가치'인 '성상의 보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것은 '공적 권위'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공적 가치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공적으로 떨치는 권위'와 '가치에 대한 권위'라는 의미니까요. 따라서 이 선지는 그저 '공적 권위'를 존중한다는 <보기> 외부의 정보와 '사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보기> 내부의 정보를 섞어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장애황'이라는 주인공이 '사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감상을 한 것이죠.

- ③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적 가치가 국가 차원 문제 해결의 당위가 되지.
해설	<보기>에 따르면, '성상의 보호'와 같은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가 됩니다. 이를 참고하면,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금릉'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출전하는 '이대봉'의 모습은, '공적 가치'라는 당위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적 활약에 조력하다니. 그냥 아빠 만난 건데.

해설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아버지인 '시랑'과 재회한 것은 비현실계의 존재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입니다. '천우신조'는 하늘과 신이 도왔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우연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일 뿐이에요. 나아가 '이대봉'이 '시랑'과 만난 것은 그저 가족끼리 상봉한 모습일 뿐, '이대봉'의 '공적 활약'과는 무관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	--

- 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가 배치되어 있네.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 적힌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있는 선지네요. '이대봉'은 '흉노' 제압이라는 '공적 활약'을 드러내며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원수인 '왕희'의 처벌을 요구하며 '사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인물의 의중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몰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고전소설 클리셰 : 일관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악인과 선인의 구도가 두드러집니다. 나아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얻어요. 이러한 클리셰를 알고 있다면 지문의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어려운 어휘가 정말 많이 사용되었고,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제시하는 낯선 형태로 체감 난이도를 상당히 높인 지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장애황'과 '이대봉'이라는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며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인물관계와 줄거리가 잡히는, 전형적인 형태의 '소설' 지문이었어요. 줄거리를 파악하고 인물관계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그저 공감하려고 애썼더니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을 잊지 마세요!

생각의 전개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5.06 [22~26] 고전시가+수필 '우부가 / 타농설' ☆☆☆

<보기> 확인

— <보 기> —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겠지요? (가)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 즉 <보기>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태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한편 (나)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권하고 격려하다.' 정도의 뜻을 가진 '권면'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앞쪽의 '긍정적으로 평가'와 비슷한 의미일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보기> 역시 '독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를 알고 있을 정도로 어휘력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요. 어쨌든 두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독해하고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할 준비를 해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저 건너 공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체님께 아는 체로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에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을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훌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뜯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걸태 하다 혼금(閹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흥정 구문 먹기 편잔 들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불가 감언이설 피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풍돈 떼기
 남북춘에 푸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불가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짜리 되었구나
 대종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불가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 가대(家臺):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 밑줄을 쳐 보았습니다. 모두 '공생원'이라는 사람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에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받는, 즉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모두 '공생원'이 하려고 하는 것이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와 엮어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주제 중심으로 가볍게 독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독해는 선지 판단 과정에서 하면 되니까요.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최근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는 수필입니다. 어려운 것을 각오하고 꼼꼼하게 정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큰 가뭄이 들어 제대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현실적 한계'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가 안 오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싹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편안히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려 보자 결심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했네요. 이 농부의 모습은 글쓴이가 권면하고자 하는,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여차피 망했으니 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게으른 농부'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자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구요.

나는 일찍이 가을걷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뻥뻥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뻥뻥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탈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가을걷이할 무렵이 되자, 글쓴이는 그 밭의 절반이 황폐하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 노인’은 그 사정을 설명하는데,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농부들은 게으른 태도로 김을 매지 않아 ‘황폐하고 성긴 곡식’만을 얻게 되었고,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농부들은 부지런하게 일하여 ‘뻥뻥한 곡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니 비가 온 모양이네요. 이에 게으른 태도를 보인 농부들은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만 우러러보고, 부지런한 태도를 보인 농부들은 술에 취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노인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밑줄 친 부분)가 곧 이 지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글쓴이 역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네요. ‘시서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선비들 역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권면하는 모습이 제시될 것이네요. 이렇게 주제를 계속 의식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글쓴이가 보기에,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세 번 정도 떨어지면 아예 자신이 공명을 이룰 분수가 아니라며 ‘운명론적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선비들 역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

글쓴이가 보기에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의 고생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아가 학문을 하여 얻는 이로움이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농공상’ 사상이 지배하던 고전문학의 세계관을 고려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주장이죠? 아무튼 글쓴이는 농사처럼 이로움이 작은 일도 부지런해야 하듯이, 공부처럼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로 도배되어 있는 지문이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2%	8%	9%	6%	5%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열거의 방식,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는 공생원이 욕심 부리는 거 열거했고, (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대조했지.
해설	(가)는 전체적으로 ‘공생원’이라는 인물이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는 ‘부지런한 농부↔게으른 농부’, ‘농사↔공부’와 같은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라는 주제를 부각했죠?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태도의 변화가 왜 드러나.
해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각각 '공생원', '게으른 농부' 혹은 '선비들'과 같은 인물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물론 (가)는 (나)와 달리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와 같은 대구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어가 어딴냐.
해설	(가)와 (나) 모두 딱히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자나 글쓴이가 자신의 내면세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죠?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 부분은 없네.
해설	(가)에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저 '공생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이유도 없겠죠? 한편 (나)의 경우, '봄', '여름', '가을걷이' 등 계절적 배경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농사를 짓는 농촌의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딱히 해학적 표현을 활용할 만한 지문들은 아니지.
해설	'해학적 표현'은 슬픔이나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표현을 의미합니다. 즉,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내면세계가 전제되어야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와 (나) 모두 특정 인물을 비판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학적 표현'

이 활용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나아가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 역시 헛소리구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78%	9%	6%	3%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주제넘게 아는 체로 ㉠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장, 이사!
해설	'공생원'은 ㉠에 현혹되어 '이장'(무덤을 옮기는 것)도 자주 하고 '이사'도 힘을 씁니다. 이는 ㉠에 따라 집터나 밭자리를 옮겨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② ㉡은 재물을 모은 공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 처자식을 흠어 놓고
(중략)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냥 흠어 놓았다는데 무슨.
해설	'공생원'은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을 흠어 놓습니다. 애초에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공생원'이 처자식을 열심히 챙길 리가 없죠? 나아가 지문 후반부에서는 아낙(처)은 친정살이를 하고 있고, 자식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를 근거로 하면 '공생원'이 가족을 전혀 챙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공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재상가에 ㉡ 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재상가에 뭘 하려고 했네.
해설	‘청질’(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힘을 빌리는 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공생원’이 ‘재상가’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인물의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맥락을 이해하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가대* 흥정 구분 먹기 ㉠ 핀잔 듣고 자빠지고
*가대(家垓):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대 흥정하러다 핀잔 들었네.
해설	‘공생원’은 ‘가대 흥정 구분 먹기’를 하러다가 핀잔을 듣고 자빠집니다. ‘구문’(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의 뜻을 알고 있기는 힘들겠지만, 맥락상 ‘가대 흥정’을 통해 얻는 보상 정도라는 생각은 해야겠죠? 아무튼 이를 노리다가 ‘핀잔’만 듣고 자빠진 ‘공생원’입니다. 이렇게 독해한 결과를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다.

부자나 후려 볼까 ㉠ 감언이설 피어 보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 적어봤네.
해설	‘공생원’은 부자를 후리려는 생각으로 ‘감언이설’을 피어 보려고 합니다. 이는 ‘감언이설’을 통해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 심화

이장, 행로상, 청질, 구문과 같은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잘 쓰지도 않은 어휘에 대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주제를 바탕으로 맥락을 ‘독해’할 수 있는지이니까요. 나아가, 시험장에서는 선지만 쪽 보고도 2번이 답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공생원’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나머지 선지와 달리, 2번 선지는 ‘공생

원’을 가족애를 가진 따뜻한 인물처럼 묘사한 선지니까요. 이런 ‘감’ 역시 문학 고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6%	8%	9%	63%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공생원 / ㉡ 게으른 농부 / ㉢ 선비들

- ㉠~㉣ 모두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들입니다. ㉠은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고, ㉡와 ㉢은 ‘운명론적 태도에 얽매어 삶의 주제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 인물들이었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술에 취한 건 부지런한 농부들이었지.
해설	㉡는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실전적 지문 독해’를 한 정도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떠올리기 쉽지 않으니, 뒷부분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는 ‘게으른 농부’로, 가을걷이할 때가 되자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 잠든 것은 ‘부지런한 농부’들이었죠?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는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는 금수저였던 것 같은데?
해설	㉡는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진 인물입니다. 금수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할 리가 없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구요. 한편, ㉢는 ‘공명’에 분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공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를 근거로 해도 허용하기 어려운 선지네요.

③ ④는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⑤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 시험 떨어졌다고 수치를 당한 적은 없지.
해설	③는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습니다. 이는 혼인을 중매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창피를 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④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할 뿐,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④ ⑤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③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⑤는 오히려 지가 놀렸지.
해설	⑤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으면서, 어차피 망할 판에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허용하기 어렵겠죠? 한편 ③는 과거에 낙방한 뒤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배운 것을 버려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은 ④가 가진 태도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⑤ ⑥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③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그 자체네.
해설	⑥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③는 공명과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고, 자신은 그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명론적 태도에 얽매어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 자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의 글쓴이가 경계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즉 이 지문의 주제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죠? 나머지 선지의 디테일한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5번 선지를 답으로 고를 수는 있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3%	15%	9%	9%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나)에서는 '부지런한 농부', '게으른 농부'의 말을 인용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박이 어딤어.
해설	이 지문은 철저하게 글쓴이의 주장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필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제로 하기에, 그에 대한 반박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인의 대사를 말하는 거네.
해설	글쓴이의 물음에 답하는 '마을 노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진 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네요.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애초에 이 지문의 주제가 다른 이에게 특정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할 때 내놓고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농사→학문!
해설	글쓴이가 '농사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학문'하는 선비들의 모습이라는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17%	14%	61%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뜯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생원이 바라고 경영하는 것들이네.
해설	'공것'과 '뜯재물'은 모두 '공생원'이 바라고 경영하는 것들입니다. '공생원'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기에, '공생원'이 바라고 경영하는 '공것'과 '뜯재물'은 이러한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실적 한계!
해설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은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 즉 '현실적 한계'에 당면하게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제였구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올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김을 맬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맬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u>그냥 쉬는 것이 나올 것이다</u> .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네.
해설	'공납'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이를 범용(남이 맡긴 물건이나 보관하여야 할 물건을 마음대로 써 버림. ≒유용)하려 하는 '공생원'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금 납부'라는 당배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어휘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공납', '범용', '유용' 정도의 어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올 것'은 어차피 비가 오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으른 농부'의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썩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돈천이나 가진 '공생원'은 '친구 대접'을 술 한 잔 밥 한 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은 <보기>에 의하면 '공생원'이 가진 '세속적 욕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노력하는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공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큰 일은 학문에 대한 것인데?
해설	(가)에서 ‘일가에게 인심을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공생원’의 말로를 보여 주는 것은, ‘공생원’처럼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에서 말하는 ‘큰 일’은 농사라는 ‘작은 일’과 대비되는, 학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글쓰기가 학문을 하는 ‘선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모습을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과 연결지은 5번 선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겹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 줄 겁니다!

③ 수필 독해 : 운문학과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필이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해,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주제도 명확하고 선지도 깔끔해서, 고전시와 수필을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제시되어,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꽤나 고생했을 지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두드러지는 경향이기도 하니, ‘피렘의 국어공작소’ 카페에서 제공하는 단어장 및 평소애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는 습관을 바탕으로 ‘어휘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수능날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생각의 전개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5.06 [27~30]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 ☆☆☆☆

<보기> 확인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 즉 일종의 트라우마를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기억 재응고화'에 대한 <보기>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보기>가 제시되었다는 건, 이 지문의 인물이 '기억 재응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그 인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지문 독해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단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다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언가 변명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의 변명은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단순히 시인하는 '어머니'의 변명은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서 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이 형성되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나'는 '아버지'의 죄를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녹녹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물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 '아버지'의 죄를 함께 나누어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는 것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네요. <> 표시한 부분은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결국 '아버지'의 환영이 무서운 모습으로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내용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 '아버지'의 환영은 '나'에겐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까지 표현될 만큼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 없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에 억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재응고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가 군대에 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부대원들은 참호를 파다가 유해를 발견하는데, 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 '나'의 '기억 재응고화'가 이루어지겠죠?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걱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를 포함한 부대원들이 '노인'과 함께 유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묶고 있던 철사줄은 살과 뼈가 녹을 때까지도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철사줄의 '끈질김과 냉혹성'이 소름끼치도록 무서웠다는 '나'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죠? 전쟁의 참혹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가요.

아무튼 '노인'은 그 '줄 묶음'을 허공을 향해 멀리 내던집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을 떠올립니다. '나'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것은, '노인'의 행동으로부터 '기억 재응고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보기>의 내용을 최대한 적용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얼드려 있었다. 사위는 운동 껌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떠오른 '나'는 담배를 피워 뚝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기증이 나면서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을 보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아마 과거 장면을 회상하는 것이거나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는 '어머니'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 부분에서 묘사된 배경 및 외양을 참고하며 이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 뒤를, '한 사내의 환영'이 바짝 따라옵니다. 바로 '나'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숨겨 놓은 액자 속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의 모습을 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이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연상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아가 '아버지'까지 떠올리며 '나의 기억 재응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가져오면, 이는 '아버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는 모습이겠죠. 그저 죄인이라고만 여겼던 '아버지'도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했던 평범한 남자였다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이라는 외양 묘사를 보면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기억 재응고화'를 하고 있는 '나'의 내면세계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아연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적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당연히 '나'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풀밭에 앉아 그들을 지켜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세계 깊숙이 들어가 더 자세하게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깊은 상상에 빠진 그때, '아버지'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아닌, 그저 '어머니'의 발자국만

'어머니'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에요.

딱 이 정도로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나'가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인식하고 싶지만 그러한 경험의 부족, '아버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기억 재응고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면세계에 주목한다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쓴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흠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평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진 것이다. 음복인 셈이었다.

"엄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길길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나'의 성찰이 끝나고, 다시 현실입니다. '나'와 부대원들, 그리고 '노인'은 유해에 대한 일종의 제사를 치르고 작은 술판을 벌입니다. 어찌 되었던 좋은 일을 한 것이니 서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마무리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 일평', '소대장'을 비롯한 이들은 '길길대며'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며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기억 재응고화'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음도 싱숭생숭할 것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찰하는 '나'의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모습이 떠올랐다면 지문을 정말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파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그렇게 술을 받던 '나'는 또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러자 또 한쪽에선 웬 사내가 보입니다. '나'가 수습한 유해의 모습처럼,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잔뜩 겁에 질린 그 사내를 향해 총성이 울렸고,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옵니다. 총을 맞은 사내의 시야가 흐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던 '나'의 시야가 흐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의 성찰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락상 당연히 이 사내는 '아버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역시 오늘 만난 유해의 주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나'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보자면 '연민' 혹은 '안타까움' 정도가 되겠죠?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함 쭉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이에 '나'는 어딘가 쓰러져 누워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러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오늘 만난 유해의 주인처럼 '아버지'는 머리맡에 '쭉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어딘가에 묘비도 없이 잠들어 있을 것이예요.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이는 '나'의 입장에서 너무나 슬픈 상상입니다. 어쨌든 '나'가 성공적으로 '기억 재응고화'를 이루어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5%	18%	8%	25%

27.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나'가 '아버지'의 죄를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닌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지각 내용을 '나'가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햇빛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엷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 둘 다 '나'잖아.

해설	㉡에는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나'라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을 떠올리고, '현기증'을 느끼는 등의 지각의 주체 역시 '나'예요. 이렇게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동일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이들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내용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	--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어가 '그건'이고, 이걸 '나'가 지각하는 대상이지.
해설	㉢의 주어는 '그건'입니다. 맥락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환영'을 주어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각의 대상인 '아버지의 환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문장의 주어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그 어떤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의 발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라는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죠?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 불현듯 시아가 부엌에 흐려 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해설	㉤의 앞은 '나'가 상상하는, 총을 맞아 최후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에 ㉤은 총을 맞아 의식이 흐려지는 '아버지'의 지각을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최후를 상상하고 정신이 아득해진 '나'의 지각을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지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나'와 '아버지' 모두 시아가 부영계 흐려 올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근거로 허용할 수는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9%	62%	5%	19%

28. 윗글에서 ㉠와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수히 시인하는 그녀의 ㉠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 한마디씩 보태었다.

- ㉠는 '아버지'의 죄를 순수히 시인하여 '나'에게 트라우마를 만든 '어머나'의 말이고, ㉡는 한창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나'와는 달리 술자리를 즐기는 이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① ㉠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랑 주제랑 뭘 상관이야.
해설	이 지문의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는 이러한 인식 '변화'의 한 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심화된 주제'를 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심화'는 어떠한 대상이 반복되며 깊어질 때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는 반복되는 부분이 아닌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와는 전혀 무관한 이들이 벌이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FAQ

Q : 이 작품의 주제가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라고 배웠습니다. ㉡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희생된 유골을 치우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가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A : 잘못된 연계학습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수능 문학 지문에서의 주제는 무조건 '중심인물의 내면세계'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는 그렇게 풀립니다. 수능 문학은 줄거리를 알고 있는지 묻는 시험이 아니라, 화자나 인물의 내면세계를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이니까요. 이 지문이 2025학년도 연계교재에 있던 지문이다 보니 이런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철저하게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 지문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를 강조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②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달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는 시작하는 부분인데 뭘 소리야.
해설	㉠는 '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게끔 하는 지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달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는 해석은 허용하기 어렵겠죠. 나아가 ㉡는 그저 '나'의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은 철저하게 '나'의 성찰이었어요.

③ ㉠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와 진짜 멋지게 써놨네.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같은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는 '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게 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게끔 하는 요인이고, ㉡는 '아버지'에 대한 성찰을 지속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나의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 경우 '낄낄대며'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을 허용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을 멋진 표현으로 써 둔 것에 불과한 선지이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심화

이 문제를 통해 결국 묻고자 한 것은 '나'의 내면세계 중심으로 독해했는지입니다. ㉠는 '나'의 내면세계 그 자체고, ㉡는 '나'의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모습이니까요. '나'의 내면세계에 차분하게 공감하며 읽지 않았다면, ㉡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이라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잊지 않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정말 소설에서는 이것 하나만 묻습니다.

④ ㉔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중착점이라면, ㉕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는 시작점이라니까.
해설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 ㉔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해소된 중착점'이라는 표현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나아가 ㉕는 이야기의 위기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지점입니다.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⑤ ㉔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㉕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㉕에서 뭘 전모가 드러나는데?
해설	㉔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㉕가 이야기의 전모를 드러내는 귀결점이라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죠? ㉕는 '나의 내면세계 속 이야기의 전모와는 무관한 상황'이니까요. '나의 내면세계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약 20%의 학생들이 그저 ㉕가 뒤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골라버린 선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선지를 답으로 골랐다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5%	9%	16%	43%	17%

29. ㉔와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저것 봐라이. ㉔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㉔ 쭈부쟁이와 영경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덩진 산기슭에 무덤도 표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㉔는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유한 대상이고, ㉕는 어딘가에서 유해가 되어 있을 '아버지'의 머리맡에 피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 ㉔는 ㉕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날짐승이 어떻게 '나의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쳐.
해설	㉔는 그저 '아버지'에 대한 비유일 뿐, 진짜 '날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를까, '날짐승' 자체는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㉕를 정말로 확인한다면 '나'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㉔가 '나의 문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② ㉔는 ㉕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실제 대상이 아닌데 뭘 소리야.
해설	㉔와 ㉕는 각각 '어머니'와 '나'가 떠올리는 가상의 존재일 뿐, 실제 시공간에 관여되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할 수는 없어요.

③ ㉕는 ㉔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㉕가 왜 희망적이야.
해설	㉔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희망이 반영된 것, 나아가 '어머니'라는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㉕는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오히려 '어머니'의 희망이 무너진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㉔와 ㉕를 반대로 써놔기에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④ ㉕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㉔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럼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니까 돌아올 수 없지.
해설	㉕에서 연상되는 상황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이미 죽은 '아버지'가 '날짐승'처럼 '어머니'에게 돌아올 수는 없겠네요. 즉, ㉔에 투영된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

	라지는 것이죠. ㉗와 ㉙ 부분에서 '나'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	---

⑤ ㉗와 ㉙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소리야.
해설	㉗와 ㉙는 각각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개인적 염원, '나의 개인적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관념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어설피게 연계교재 학습을 하고서 이 어처구니없는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무려 17%나 되는 모습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71%	11%	10%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나가 처한 상황을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어놓은 선지입니다.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버지에 관한 기억 때문에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에 시달린 거 맞지.
해설	'나의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직접적인 원인)은 '아버지'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 이 지문의 내용 그 자체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줄뭉침'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게 '나'의 기억 재응고화랑 뭘 상관이나.
해설	'줄뭉침'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는 그저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그 행위를 보며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를 떠올렸기 때문에, 두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가 스스로 '기억 재응고화'의 과정을 거치며 연결시킨 것일 뿐, '노인'과 '어머니'가 '나의 '기억 재응고화'를 돕는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이 지문에서 '나의 '기억 재응고화'는 철저하게 '나의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억 재응고화 시작이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했듯이,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나의 상상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재응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저 죄인으로만 여겨졌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했던 평범한 남자로 인식되는 순간이었죠.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버지를 연민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겠지.
해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재응고화'의 결과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유해'에 대응시키며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변화는,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보기>의 내용과 연결지를 수 있겠죠.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skip 가능 구간 : 인물의 똑같은 내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뻘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보기〉를 바탕으로 얻은 힌트를 이용하여 ‘나’의 내면세계를 추적해가는, 전형적인 현대소설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내용일치 문제를 푼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답이 잘 보이지 않게끔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했구요.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이라는 수능 소설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잊지 않은 채로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생각 워크북 <현대시 창작 원리>

2025.06 [31~34] 현대시 '청산행 /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

<보기> 확인

— <보 기> —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지문은 '자연'과 '절대자'와 같은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먼저 (가)의 경우,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나)의 경우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구요.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에 대해 (가)는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나)는 회의하고 멀어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확히 체크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풀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 즉 '세속의 일상'에 대한 미련 없이 떠나와 '청산'에 도착한 화자는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는 표현을 하며 '청산'이라는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다 둔 편지 구절', '버린 칫솔'처럼 '세속의 일상'에서 경험하던 것들이 이따금 생각나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두 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에 완전하게 동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보기>에서 설명한 주제 그 자체죠?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보기>가 없었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작품입니다. 화자는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시면서 성찰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의 시킴'이 아니라는 표현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의미할 것인데, 이렇게 화자는 결국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나'와 '모든 것'을 인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보고, 일단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9%	13%	11%	57%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 판단 과정	때까치들이 순결해지고, 맨살 비비는 돌들이랑 함께 눕는다고 했다.
해설	(가)에는 '물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지는 때까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눕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까치', '돌들'과 같은 인격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청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화자의 심리 내포' 자체가

	틀리기 어려운 내용이니, '인격화된 대상'만 찾아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ㄹ 뿐이 많이 반복되네.
해설	(나)에서는 '~ㄹ 뿐'이라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자'와 같은 존재가 아닌 자신의 경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청산으로 왔으니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지.
해설	(가)의 화자는 '세속의 일상'을 보내던 어딘가에서 '청산'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가', '여울물', '때까치들', '나무들', '들거미줄', '돌들'과 같은 여러 사물을 포착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점차 '청산'에 동화되어 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나)의 경우, 그저 차를 마시는 화자의 상황만이 제시되었을 뿐 '공간의 이동'을 허용할 근거는 찾기가 어렵죠?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라는 표현이 거듭 명시되어 있지.
해설	(나)의 경우, '나'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화자를 거듭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의 경우에는 화자를 직접 명시한 적이 없네요.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 친밀감이 왜 나와.
해설	(가)의 경우, '들거미줄', '돌들'과 같은 자연물에 함께 하고 싶다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

	게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 (가)의 주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한편, (나)에서도 '참새', '들국화', '물'과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피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죠? 애초에 (나)의 주제를 고려할 때, '대상'에 대한 '친밀감'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7%	10%	70%	6%

3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 관습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 관습이다.

- ㉠의 경우, '청산'에 온 화자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고, 서른 번 다져 다가도 서른 번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의 주제를 고려하면, 이는 '세속의 일상'과 '자연에의 동화'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계속 왔다갔다 하던 것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관습'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한편 ㉡의 경우, 화자가 '달갑고 가장 즐거워' '차를 마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나)의 주제를 고려하면, 이는 '절대자'의 의지가 아닌 화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차를 마시는 행위'를 즐거움을 깨닫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며 ㉠과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언어의 감각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져 두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인데?
해설	㉠은 '서른 번'씩이나 다졌다가 포기하다가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즉, 화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죠. 동시에 화자는 ㉠과 단절하고 '청산'이라는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곧 주제 그 자체였죠? 단절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리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을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들이 가득하기에,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② ⑥는 '호올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는 이거 좋아하는데?
해설	⑥가 '호올로' 하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렇게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을 즐기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혼자서 즐겁게 취미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사회적 고립'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요?

③ ④는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⑥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피안에 대한 지향이 왜 나와.
해설	'피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피안'은 '현실 밖의 세계', '관념적 세계'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참고로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는 '차안'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아무튼, ④를 떠올린 화자는 '서쪽 마을'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④가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쪽 마을'은 '청산'에 있는 현실적 공간일 뿐, '피안'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화자가 '피안에 대한 지향'을 한다는 것도 주제를 고려하면 너무 뜬금없구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서쪽'은 '저승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만든 선지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허용하기는 어렵겠지요. 한편, ⑥가 일과를 마친 '고즈넉한 저녁'에 차를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겁게 여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⑥가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④ ④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⑥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른 번 고민했으니 갈등이고, 고즈넉하고 담담하면 평정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해설	④는 '서른 번'이나 다져 두었다가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는 미리 생각한 것처럼 '세속의 일상'과 '자연의 동화'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의 모습을 나타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를 왜 연민해.
해설	화자가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볼 때, '쓰다 둔 편지 구결과 버린 칫솔', 즉 '세속적 일상'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인가의 사물들을 '내려다보'는 과정에서 ④와 같은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갈등'하는 모습이지 '자기 연민'의 모습은 아니지요? 화자는 스스로를 안쓰러워 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⑥의 경우, 화자가 달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행동일 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로'한다는 것은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⑤ ④는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⑥는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를 왜 연민해.
해설	화자가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볼 때, '쓰다 둔 편지 구결과 버린 칫솔', 즉 '세속적 일상'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인가의 사물들을 '내려다보'는 과정에서 ④와 같은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갈등'하는 모습이지 '자기 연민'의 모습은 아니지요? 화자는 스스로를 안쓰러워 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⑥의 경우, 화자가 달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행동일 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로'한다는 것은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생각 심화

이 문제는 '고립', '피안', '고즈넉하다', '평정함', '위안'과 같은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안'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모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대충 알고 있다면 오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립'을 대충 '혼자 있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홀로 있으니까 고립 맞지'와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5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안'을 대충 '기분 좋게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자기 위안 맞지'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예요. 이처럼 최근 평가원은 '어휘력'이 정말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문을 통해 단어들의 정확한 뜻에 익숙해지는 식으로 '어휘력'을 키워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7%	72%	8%	10%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 호리던 산갈이 잘 보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엔 흐렸다는 거지.
해설	호리'던'이라는 어미에 주목하면, 원래는 잘 파악되지 않던 '산갈'이 이제 잘 보인다는 식으로 독해할 수 있겠죠? 이를 근거로 하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가늘게 흠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
해설	㉡은 '저녁 연기'가 흠어지는 형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화자는 이를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과 연결짓고 있어요. 즉, '한 가정'이 가지고 있을 '고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것이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 중 하나데?
해설	화자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같은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자 합니다. 이처럼 ㉢의 형상을 가진 '돌들'은 아직 세상을 알아 보지 못한, 즉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대상 중 하나를 표현한 것이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운 일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지.
해설	이제'는'이라는 조사에 주목하면,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16%	31%	30%	9%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세속의 일상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쓰다' 든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은 (가)의 화자가 '세속의 일상'에서 경험하던 것들입니다. 화자는 지금 '청산'에 와 있는데, '편지'와 '칫솔'은 과거의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속의 일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를 생각하는 것은 '청산'이라는 자연에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해 '세속의 일상'을 떠올리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나)의 화자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사실과 관습'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곧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과 관습'과 같은,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나'와 '모든 것'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과 관습'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깐요. 애초에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 그 자체이기도 하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지요?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건 주제랑 어긋나는데?
해설	(가)에서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청산'이라는 자연에 친숙

해설	해지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숙해지니 원래 잘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이게 된 것이라는 의미죠.
해설	한편,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화자가 남은 인생에서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이라는 깨달음, 즉 '절대자'가 아닌 스스로가 경험한 것만이 존재 인식의 근거라는 깨달음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현실에 얽매어 경험한 사실만을 존재 인식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미이니깐요.
해설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를 디테일하게 적용하며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이렇게 <보기>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은 최근 평가원 현대시 <보기> 문제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FAQ

Q :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고 했지만, '절대자'의 존재 그 자체를 회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 : 일단 (나)의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 그 자체를 회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선지에서는 명시적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고'라고 써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라고만 써 놓았어요. 이는 '절대자와 관련된 여러 것들을 회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자와의 관계' 역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매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더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화자의 심리가 투사된 건 당연할 거고, (나) 부분은 주제 그 자체네.
해설	(가)의 '여울물'은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립니다. 이는 자연으로의 동화를 어색

해하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
 죠. 나아가 모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졌다는 '때
 까치들은' 여전히 '순결해'지지 못한 채 세속의 더
 러움을 품고 있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따
 라서 '때까치들'을 보는 화자의 내면세계에 공감해
 보면, 자신과는 달리 순결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서 부러움과 같은 심리를 보이겠죠. 이러한 심리가
 투사되어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자연물은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고려하여 독해했
 다면 이와 같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절
 대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
 습니다. 이는 '참새'와 같은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
 어 '절대자'와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로,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에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p>(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은 자연 속 의 대상들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들과 '함께' 잠 들고자 합니다. 이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드 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p> <p>한편, (나)의 화자는 '물에게 물은 물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물'이 곧 '물'로만 인식된다 는 의미겠죠? 화자는 이와 같이 자신도 자신이 경 험한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 내는 것이죠. 이렇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p> <p>실전에서는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애초에 <보기>에서 설명한 두 작품의 주제 그 자체가 제시 되어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 다.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 다는 기본 원리를 잊지 마세요.</p>

현대시 독해 연습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화자는 어딘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곳에 미련은 없나 봐요. 미련이 남았다면 손
 을 흔들면서 잘 있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화자가 떠난 곳은 '청산'입니다. 이곳에 며칠 동안 머문 화자
 는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이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눈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청산'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졌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화자는 '청산'에서 '상수리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내려다봅니다. 그
 런데 갑자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가'
 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렇게 사람을 보니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이 생각난 것이죠. 이는 화자가 '청산'에 오기 전에 있던 공간(자연
 과 반대되는 속세의 공간)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 흔들고 떠나
 갈 미련은 없다고 하더니, 사람이 사는 곳을 보니 속세에 미련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는 화자입니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또한 화자는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
 물'을 보고 있어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되
 어 있거나 반대되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울물' 역시 화자의 내
 면세계와 관련되어 있기에 화자가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길을 놓치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여울
 물'은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화자 역시 '청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놓치'기도 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여울물'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한편 '때까치들은' 모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진' 모습입니다. 아직 '여
 울물'처럼 '청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화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청산'
 에 완벽하게 적응한 '때까치들'의 모습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겠죠. 나
 가 화자의 입장에서 '때까치들은' 일종의 롤모델로 기능하면서 '청산'에
 제대로 적응해야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이는 '서른 번 다쳐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때문이라고 해요. 작품의 맥락 상 화자는 속세를 떠나 '청산'이라는 자연에 도착한 상황인데,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뒤에 두고 온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속세를 떠나려고 서른 번이나 다짐했다가 또 서른 번이나 포기했던, 마치 '관습'과도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속세를 떠나 '청산'에 온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화자는 속세에 미련이 가득하기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까치들'을 보고서 적응해볼까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미련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서쪽 마을'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는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화자는 이를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녁 연기가 '고민의 양식'으로 느껴지는 것은, 화자의 내면세계가 '고민'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인식할 테니까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화자는 속세에서 '고민' 가득한 삶을 살았기에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화자는 결국 '들거미줄', '돌들'과 함께 누워 잠들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이라는 표현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들'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편지', '칫솔', '관습들' 등을 떠올리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다가도, '서쪽 마을'의 '저녁 연기'를 보고 어차피 속세는 '고민'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청산'에 적응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고민'을 해 본 적 없는 순수한 자연물들과 함께 말이예요.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올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고즈넉한 저녁'에 혼자서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화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만 사실일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는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향기를 가지지 않은 '물'과 같이 '차를 마시는 것'은 '담담한 사실'일 뿐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화자는 짙은 향기가 있든 없든 지금 스스로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네요.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은 '누구'의 시킴을 받은 것도, '누구'의 손으로 직접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즉, '누구'로 표현된 존재의 의지가 개입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달갑고 즐거워 차를 마시고 있을 뿐, '누구'의 의지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자는 이를 '사실'이자 '관습'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1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차를 마시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면서, 화자 스스로 꾸준히 반복해 온 '관습'과도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물'의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것이 주변의 '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쳐줘도 '소금물'일 뿐이죠.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를테면 '차를 마시는 나'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이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이와 같은 '사실과 관습'은 차에서 느껴지는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 뿐이니깐요. 화자가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그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관습'밖에는 없고, '물'을 비롯한 '모든 것'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보기>를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문을 독해하고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현대시 세트였습니다. 나아가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 정확하게 끌고 와서 디테일하게 독해하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최근 현대시 세트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합시다.